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0%로 전년대비 1.6%p 증가함.
-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87.3%로 전년대비 0.7%p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5.5% 상승한 91.4%를 나타냄.
-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보다 높게 나타남.

<표 1> 가구당 보험가입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명보험	86.0	87.2	90.8	89.9	88.0	87.3
손해보험	78.5	82.3	86.3	87.4	85.9	91.4
전체	94.4	95.6	97.7	97.4	96.4	98.0

- 세대주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가구당 가입률이 증가했으며, 소득별로는 저소득 가구와 중소득 가구의 보험가입률이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표 2> 2011년 가구당 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보험 종목별 특성별		생명+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거주 지역별	대도시	95.9	97.3	87.9	87.4	84.4	88.3
	중소도시	96.9	98.7	88.7	87.5	86.6	94.1
	군지역	96.5	98.2	85.0	86.2	90.3	94.5
세대주 연령	30대	96.3	97.5	85.6	84.0	80.7	86.5
	40대	98.7	98.0	90.4	97.2	92.9	92.5
	50대	96.1	98.2	89.7	88.6	85.8	93.1
	60대 이상	89.2	97.6	74.3	89.0	75.7	90.2
가구 소득	저소득	91.3	92.8	76.8	75.9	70.7	79.9
	중소득	98.8	99.7	93.0	90.8	92.4	94.9
	고소득	99.0	99.1	94.6	90.6	96.1	94.9
가입률		96.4	98.0	88.0	87.3	85.9	91.4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개인 보험가입률은 92.5%로 전년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3.4%p 하락한 78.0%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6.5%p 상승한 71.5%로 나타남.

<표 3> 개인별 보험가입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생명보험	81.8	81.4	78.0
손해보험	59.5	65.0	71.5
전체	92.0	92.1	92.5

-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개인 보험가입률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생명보험은 여자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남자보다 높고 손해보험은 남자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여자에 비해 높음.
- 기혼자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미혼자의 개인 보험가입률 보다 14.6%p 높으며, 이는 기혼자의 경우 가족 부양 및 노후 준비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무직/기타, 저학력, 저소득 등 경제 취약계층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분		생명 + 손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성별	남성	92.6	92.6	79.0	73.3	79.1	81.8
	여성	91.6	92.4	83.8	82.6	51.2	61.3
직업	화이트칼라	94.5	94.7	85.5	76.1	74.2	82.2
	블루칼라	90.3	88.9	71.8	72.0	64.8	68.2
	자영업	94.5	95.9	84.6	82.6	74.0	81.6
	농/림/수산업	86.7	100.0	66.7	83.3	70.0	83.3
	주부	97.6	95.7	92.7	86.2	52.2	58.5
	무직/기타	56.7	57.5	43.3	47.5	23.9	27.5
연령	20대	78.6	79.9	67.3	63.8	43.2	51.1
	30대	95.9	97.6	84.6	77.9	71.2	77.1
	40대	97.1	95.2	87.3	82.9	73.6	76.6
	50대 이상	93.4	94.4	82.8	82.4	66.8	75.7
학력	중졸 이하	76.3	85.2	63.2	68.5	35.5	55.6
	고졸	94.5	92.8	83.3	80.6	66.7	67.8
	대재 이상	91.3	92.9	81.8	75.7	67.4	77.9
결혼	기혼	95.7	95.9	86.2	82.4	69.8	76.2
여부	미혼	79.6	81.3	64.8	63.3	48.5	55.8
가구 소득	저소득	86.5	87.4	70.5	69.4	52.7	62.2
	중소득	94.7	93.6	86.7	80.9	68.7	73.1
	고소득	95.1	95.3	86.8	79.6	77.9	77.9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67.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망보장보험(26.8%), 저축성보험(20.6%), 변액보험(6.3%)의 순임.

- 모든 연령층에서 20대의 보험가입률이 낮게 나타났고, 모든 종목에서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보험가입률이 높음.
- 대부분의 종목에서 무직/기타,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험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큰 증가세를 나타냄.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연령	20대	55.9	51.5	14.1	13.5	9.5	7.9	6.4	2.2
	30대	72.3	65.2	33.3	33.6	25.5	24.5	7.9	8.7
	40대	79.0	73.2	32.6	31.2	23.9	27.5	7.2	8.9
	50대 이상	76.7	73.1	25.4	26.9	22.7	20.7	4.1	5.6
직업	화이트칼라	71.9	65.2	32.4	28.8	23.4	22.7	9.0	5.7
	블루칼라	63.0	61.8	25.0	21.0	15.3	19.1	6.5	5.7
	자영업	76.8	71.2	29.7	32.9	26.3	25.6	6.8	8.9
	농/림/수산업	56.7	66.7	23.3	25.0	20.0	8.3	6.7	8.3
	주부	85.8	76.3	23.9	26.9	21.1	17.4	3.2	5.5
	무직/기타	37.3	37.5	6.0	10.0	3.0	2.5	0.0	0.0
학력	중졸 이하	57.9	57.4	15.8	20.4	13.2	18.5	2.6	3.7
	고졸	75.8	72.7	28.1	25.2	20.6	20.2	4.7	4.1
	대재 이상	70.2	61.7	26.7	29.4	23.1	21.3	8.5	9.5
결혼	기혼	78.3	72.1	29.5	29.2	24.7	22.8	6.0	7.3
	미혼	52.2	51.4	17.4	18.7	8.9	13.3	6.3	3.2
소득	저소득	62.3	58.3	19.3	21.9	14.5	18.7	2.8	2.9
	중소득	77.1	71.8	29.5	26.5	22.9	17.8	6.0	5.5
	고소득	77.9	65.1	32.8	33.2	28.9	31.1	12.7	12.8
가입률		72.4	67.3	26.8	26.8	21.2	20.6	6.1	6.3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이 전년대비 7.0%p 상승한 54.3%를 기록했으며 일반손해보험은 전년대비 2.8%p 상승한 7.4%를 나타냄.

- 장기상해, 장기건강보험 등이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면서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모두 전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임.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모두 저소득층과 중졸 이하의 계층에서 전년대비 가입률이 크게 상승함.

<표 6>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0	2011	2010	2011
연령	20대	32.3	40.2	2.7	4.8
	30대	52.4	59.3	6.7	9.5
	40대	50.4	58.0	5.4	6.3
	50대 이상	49.9	56.6	3.7	8.2
학력	중졸 이하	26.3	44.4	2.6	7.4
	고졸	49.2	51.9	5.5	8.0
	대재 이상	48.1	58.5	3.7	6.7
결혼	기혼	51.4	57.8	5.2	7.7
	미혼	33.3	42.8	2.6	6.5
소득	저소득	35.4	45.0	3.3	6.8
	중소득	50.6	55.3	4.0	6.0
	고소득	60.8	62.6	8.8	12.3
가입률		47.3	54.3	4.6	7.4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조사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도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의향없음’응답은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8.3%p 감소한 56.9%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3%p 감소한 34.1%로 나타남.

○ 생명보험 가입 의향은 저축성보험이 20.6%, 질병보장보험이 19.8%, 사망보장보험이 11.7%, 변액보험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종목의 가입 의향이 20% 이하로 나타남.

－ 특히,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67.3%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입 의향이 19.8%로 저축성 보험 다음을 차지함.

○ 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장기손해보험이 29.8%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손해보험은 8.8%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7> 보험 상품별 가입 의향 비교

(단위 : %, %p)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보장 보험	사망 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의향 없음	장기 손해 보험	일반 손해 보험	의향 없음
2009년	16.0	6.3	12.8	3.3	68.3	19.8	6.2	43.5
2010년	16.9	6.7	14.4	5.8	65.2	24.3	8.3	36.4
2011년	19.8	11.7	20.6	5.9	56.9	29.8	8.8	34.1
증가율	2.9	5.0	6.2	0.1	△8.3	5.5	0.5	△2.3

주 : 사망보장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이 포함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로는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20.1%), 저축수단(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가입 이유로는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6.5%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가입 이유는 2% 이하로 낮게 나타남.

<표 8>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 응답)

(단위 :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0	2011	2010	2011
위험 보장	96.6	94.4	98.2	96.5
노후자금 마련	19.3	20.1	1.3	0.7
목돈마련 저축수단	10.4	9.6	1.4	1.4
자산증식 투자수단	2.3	3.5	0.3	0.8
유산상속 목적	5.0	2.9	0.5	0.3
세제혜택 유리	0.4	1.4	0.4	2.0

□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별 가입 이유로 위험 보장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험 보장이 대부분의 종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저축보험에서는 노후 자금 마련이 높게 나타남.

○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로는 질병보장과 사망보장보험은 위험 보장,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보험상품의 특성이 반영됨.

○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로는 모든 종목에서 위험보장이 가장 많이 선택됨.

<표 9> 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위험 보장	저축 수단	노후자 금 마련	자산 증식	유산 상속	세계 혜택
생명 보험	질병보장	96.5	0.9	0.4	0.7	0.2	1.5
	사망보장	66.7	6.5	17.1	2.8	6.5	0.3
	저축성	25.1	23.1	52.2	5.7	1.2	2.4
	변액	35.5	18.4	36.8	9.2	1.3	0.0
	기타	97.6	0.8	0.8	0.0	0.0	0.8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96.0	0.5	0.3	0.3	0.2	2.6
	장기손해보험	96.8	1.5	0.6	0.5	0.3	2.0
	일반손해보험	88.8	0.0	0.0	2.2	1.1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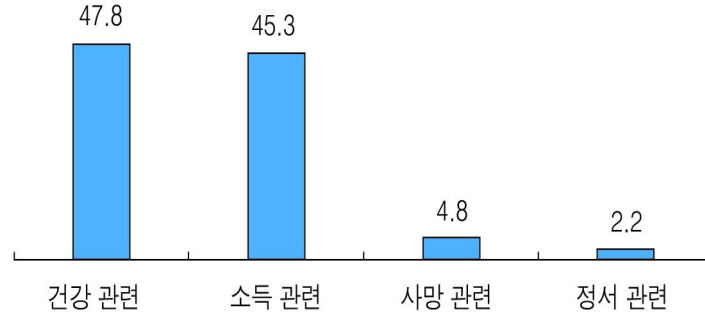
II. 노후생활 불안 요소

□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한 항목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감소 및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위험이 45.3%로 그 다음을 차지함.

○ 건강에 대한 불안은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에 대한 불안은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 노후생활 불안 요소(1순위 기준)

(N=1,200 / 단위 : %)



<표 10> 노후생활 불안 요소: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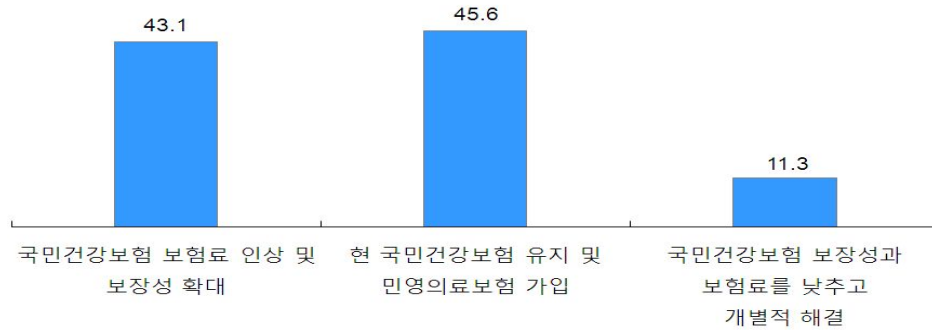
(단위 : %)

특성별		건강 관련	소득 관련	사망 관련	정서 관련
응답자 연령 I	20대	42.4	48.5	5.7	3.5
	30대	46.6	47.8	4.0	1.6
	40대	45.4	46.5	5.9	2.2
	50대 이상	52.6	41.4	4.2	1.8
가구 소득	저소득	47.1	47.5	3.2	2.2
	중소득	46.3	46.7	4.5	2.5
	고소득	52.8	38.3	7.7	1.3
응답자 연령 II	47세 이하	44.6	47.9	5.1	2.4
	48~56세	51.8	41.7	4.3	2.2
	57세 이상	54.3	40.7	4.9	0.0

Ⅲ.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노후생활 자금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 방안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개별적으로 해결(45.6%)하는 방안과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43.1%)하는 방안으로 양분됨.

<그림 2>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
(N=1,200 / 단위 : %)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에 적합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3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 예금 상품(13.5%), 퇴직연금/퇴직금(12.3%), 보험사의 연금보험(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방법
(N=1,200 / 단위 : %)

노후대비 생활자금	1순위	1+2순위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35.2	54.1
은행 예금 상품	13.5	31.0
퇴직연금/퇴직금	12.3	24.7
보험사의 연금보험	11.3	23.8
부동산 수입	7.3	18.4
은행 연금저축	7.2	15.5
노후의 근로소득	6.0	13.7
저축성보험	4.6	9.9
은퇴 후 재취업	1.6	4.2
연금펀드	0.7	1.9
주식 및 채권	0.3	1.0
자녀의 경제적 지원	0.2	1.0
일반펀드	0.1	0.6

IV. 노후 부양 및 경제적 도움

- 노후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녀가 동거하면서 부양해줄 것에 대한 기대는 21.7%로 낮은 반면 동거하면서 부양할 의향은 71.5%로 높게 나타남.
- 노후에 건강 악화 시 부양에 대한 기대는 모든 계층에서 ‘없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양 모든 계층에서 ‘있다’는 응답이 70% 내외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부양 기대 및 부양 의향

(N=1,200 / 단위 : %)



-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26.0%로 낮은 반면, 부모님이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도움을 드릴 의향은 86.1%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자녀에 경제적 도움 요청 및 제공 의향: 특성별

(N=1,200 / 단위 : %)

